

‘N+시키-’ 구성의 유형

박 철 우

안양대학교

chlbk@freechal.com

1. 서론

한국어에서 ‘N+시키-’ 구성(이하 {시키} 구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동의 기능을 가지는 문법적 구성으로 여겨져 왔고 최근에는 단순한 사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합성적 어휘로 처리하려는 논의(김형배 1995; 김성주 2002; 한선혜·박철우 2004)가 생겨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동법의 논의에서나 형태적 합성법의 논의에서나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¹ 아마도, 그 이유로는 ‘N+시키-’ 구성이, 많은 경우 ‘N+하-’ 구성의 사동 형식이어서 N이 한자어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므로, 고유어 동사나 형용사에 ‘-이-, -히-, -리-, -기-, -(y)우-, -구-, -추-’ 등의 파생접사가 붙은 형식(이하 {히} 구성이라 함)에 비해 기본적인 한국어 사동법 형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N+하-’ 구성이 일반적인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어휘로 받아들여 반해 ‘N+시키-’ 구성은 출현 빈도 때문인지 전혀 대등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예: 철수가 수학을 공부했다. / 선생님이 철수에게 수학을 공부시켰다.).²

그러나, ‘N+시키’ 구성은 한선혜·박철우(2004)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장형 사동이라고 부르는 통사적 사동법(‘V+게 하-’ 구성, 이하 {게} 구성이라 함)의 특성(간접 사동)과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이라고 부르는 형태적 사동법의 특성(직접 사동 내지 동반 사동)을 모두 보여줄 뿐 아

1 최현배(1971) 이후, 이정민(1974), 서원임(1974) 등에서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시키-’에 대한 논의가 언어자료의 충분한 검토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키다’를 접미사로 등재하고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라 풀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 ‘교육시키다, 등록시키다, 복직시키다, 오염시키다, 이해시키다, 입원시키다, 진정시키다, 집합시키다, 취소시키다, 화해시키다’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등재된 예들은, 결합된 명사들이 서술성을 가진다는 점과 이것들이 말뭉치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점 이외에 구체적인 일정한 기준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라, 단일 어휘로서 단순 타동사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서 {시키}의 기능만을 고려하여 구성의 전체의 성격을 단순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 (1) a. 선생님이 철수에게 시계를 수선시켰다.
 b. 누나는 오늘도 환자를 산책시켰다.
 c. 철수는 끊어진 두 선을 서로 연결시켰다.
- (2) a. 선생님이 철수에게 시계를 수선하게 했다.
 b. 누나는 오늘도 환자를 산책하게 했다.
 b'. 누나는 오늘도 아기를 재웠다.
 c. *철수는 끊어진 두 선을 서로 연결하게 했다.
 c'. 철수는 먼저 끊어진 두 선을 서로 연결했다/이었다.

(1a)는 (2a)와 같이 {게} 구성으로 환언할 수 있는 반면, (1b)는, (2b)로 환언하였을 때보다 직접성 내지는 동반성이 강하게 느껴지므로 단순히 환언하기에는 의미 차이가 있다. (1c)는 {시키}를 사동형으로 볼 때, 그 {시키} 구성이 그것의 주동형으로 흔히 상정되는 'N+하-' 구성(이하 {하} 구성이라 함)으로 환원될 수 없고 오히려 그 {하} 구성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1c)는 최현배(1971)로부터 오용으로 여겨져 왔지만 「연세한국어사전」 이후 이에 대한 수용이 논의되어 왔다. 정성여(2002)는 이를 직접 주제로 다룬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키} 구성에 반영된 사동화의 차이가 '시키-'와 결합하는 술어명사의 논항구조와 사동화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동주(causer)와 피사동주(causee)의 자격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존하리라고 보고 먼저, {시키} 구성의 유형을 구분한 뒤 이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2. 'N+시키-' 구성의 유형

한선혜·박철우(2004)에서는 {시키} 구성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은 그 구성의 어휘화 정도를 판별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여기서, 그 구분을 다시 이용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개별 구성에 대한 판별보다는 그러한 구성들의 구조적인 차이에 좀더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유형의 배열과 그 내용을 재조정하였다.³

2.1. 제1유형

{시키} 구성의 유형을 구분하자면,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3) 제1유형⁴

Nx-가 W N[-를]하-

⇒ Ny-가 Nx-에게 W N[-를]시키-

(4) a. 철수가 노래했다.

b. 친구들이 철수에게 노래(-를) 시켰다.

(5) a. 반장이 숙제를 검사했다.

b. 선생님이 반장에게 숙제를 검사(-를) 시켰다.

제1유형은 술어명사의 주어 논항(Nx)이 전체 문의 간접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술어명사가 전체 문의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와 술어명사가 '시키-'와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나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4b)와 (5b)에서 괄호 속의 '-를'이 실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제1유형은 언제나 의미 차이 없이 {게} 구성으로 환언될 수 있다.

(6) a. 친구들이 철수에게 노래를 하게 했다. = (4b)

b. 선생님이 반장에게 숙제를 검사하게 했다. = (5b)

제1유형에서 주목할 점은, 술어명사의 주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문의 간접목적어가 그 술어명사에 대해 가지는 의미역할이 행위주(agent)에 해당되어 전체 문 주어인 사동주의 통제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시키는 행위'와 '술어명사의 의미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각각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는 행위주를 요구하지 않는 술어명사가 '-시키'와 결합될 때는 결코 '-에게' 논항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통해 입증된다.

³ '시키-'는 단독으로 '주문하-'의 의미를 가지는 개별 어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그러한 용법의 '시키-'는 논외로 한다.

⁴ W는 공통으로 출현할 수 있는 임의의 논항을 가리킨다.

- (7) a. 딸이 편지로 아버지를 감동시켰다.
 b. *딸이 편지로 아버지에게 감동(을) 시켰다.
- (8) a. 김 회장은 그 회사를 크게 발전시켰다.
 b. *김 회장은 그 회사에(게) 크게 발전(을) 시켰다.
- (9) a. 그 기술자가 두 전선을 연결시켰다.
 b. *그 기술자가 두 전선에(게) 연결(을) 시켰다.

이정민(1974)은 ‘시키-’를 기저의 ‘하게 하-’로 분해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때 사동적 행위는 통상적으로 말하거나 시키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잠재적인 행위주에게 지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키-’는 ‘하-’의 기저 행위주를 간접 목적어로 취하는 표면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성 명사 그룹(그룹I)으로 ‘심부름, 공부, 도둑질, 소제, 사냥, 일’ 등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 동사성 명사 그룹과 달리, 행위주를 갖지 않고 대상(theme)을 주어로 가지며 기동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성 명사 그룹이 ‘시키-’와 관련될 때는 간접 목적어가 필요 없고 그 동사성 명사가 전체 문의 목적어로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명사 그룹(그룹II)으로는 ‘취직, 승진, 발전, 합격, 입학’ 등을 들었다. 그런데, 그는 그룹I이 추가 파생 과정을 거치면 (10b) 또는 (11b)와 같이 함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 (10) a. 어머니가 누나에게 일을 시켰다. ⇨ 누나가 일을 했다.
 b. 어머니가 누나를 일시켰다. → 누나가 일했다.
- (11) a. 내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다. ⇨ 아이가 공부를 했다.
 b. 내가 아이를 공부시켰다. → 아이가 공부했다.

한선혜·박철우(2004)에서 제시된 예 가운데 본고의 제1유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술어명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⁵

⁵ 한선혜·박철우(2004)에서는 김한샘(2003)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추출하여 {시키} 구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 분류에서는 ‘-에게’보다는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행위주인 경우를 한 유형으로 묶었기 때문에 80여 개의 명사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었고 본고에서는 ‘-에게’가 제약되는 경우를 모두 제외하여 위 (12)의 24개만 남게 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제2유형에 편입시켰다.

- (12) 공부, 과외, 구경, 기억, 납득, 다짐, 대신, 드라이브, 반복, 복용, 습득, 시작, 심부름, 애기, 연습, 이해, 인식, 잉태, 전수, 준비, 조심, 터득, 이해, 인식, 잉태, 전수, 준비, 학습, 확인

2.2. 제2유형

{시키} 구성의 제2유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지는 것들이다.

(13) 제2유형

Nx-가 W [N-하다]
 ⇒ Ny-가 Nx-를 [N-시키다]

- (14) a. 아기가 목욕했다.
 b. 영희가 아기를 목욕시켰다.

- (15) a. 사고력이 저하한다.
 b. 술이 사고력을 저하시킨다.

- (16) a. 청중들이 감동했다.
 b.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이 유형은 술어명사의 주어(Nx)가 전체 문의 직접목적어로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유형은, 술어명사의 주어가 전혀 자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1유형과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술어명사 N보다 논항이 하나 더 많으며 술어명사가 표상하는 사건과 그것을 유발하는 사동주와 관계되는 별도의 사건이 존재한다. 제2유형의 경우, 사동주 논항의 의미역할은 제1유형의 경우보다 폭이 넓어서 (14b)와 같이 행위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15b)나 (16b)와 같이 원인(cause)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을 포괄한다. (14b)는 술어명사 자체는 행위주를 요구하는 동사라고 여겨지지만 ‘아기’와 같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할이 기대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절에서 ‘-를’과 결합되어 제2유형에 속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15b)와 (16b)는 술어명사와 관련하여 그 주어(Nx)가 각각 대상(theme)과 경험주(experiencer)로 나뉜다. 또, (15b)의 경우, 이 구성에 참여하는 술어명사가 {하} 구성과 {되} 구성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15b)는 논항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보다 (16a)의

사격 보어로서의 원인 논항('-에' 논항)이 (16b)에서 주어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과 같은 유형화에서 보자면, W가 Ny로 실현된 것이다. 이는 물론, (14)와 (15)에서도 '-에 의해'를 W로 상징하면 W가 Ny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유형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논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포함하여,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논항이 한정(delimit)되어 장면으로 고려될 때 각 술어에 의해 관련된 두 사건이 장면 상에서 분리되지는 않는다.

- (17) a. ?영희가 아기를 목욕시켰지만, 아기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
 b. ?술이 그의 사고력을 저하시켰지만, 그의 사고력은 저하되지 않았다.
 c. ?그녀의 진술한 이야기가 청중들을 감동시켰지만, 청중들은 감동하지 않았다.

- (18) a. 영희가 아기를 목욕시켰다. → 아기가 목욕하였다.
 b. 술이 그의 사고력을 저하시켰다. → 그의 사고력이 저하하였다.
 c. 그녀의 진술한 이야기가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 청중들이 감동했다.

이 유형은 의미 차이 없이 단순히 {계} 유형으로 환언될 수 없다.

- (19) a. 영희는 아기에게 목욕을 하게 했다. ≠ (14b)
 b. 술이 사고력을 저하하게 한다. ≠ (15b)
 c. 그녀의 진술한 이야기가 청중들을 감동하게 했다. ≠ (16b)

한·박(2004)에서 조사된 {시키} 구성 가운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200여개 정도이다.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 a. 행위주/대상을 취하는 경우(ㄱ으로 시작하는 항목만 제시): 감소, 감퇴, 결별, 결합, 결혼, 경직, 경화, 계승, 고착, 관련, 관통, 교차, 굴복, 귀가, 귀결, 귀속, 기동 ...
 b. 경험주를 취하는 경우(전부): 각성, 감동, 감화, 고생, 교감, 긴장, 도취, 동요, 만족, 실망, 안심, 전율, 절망, 좌절, 흥분

2.3. 제3유형

세 번째 유형은 더 이상 사건의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 대한 판정은, 동일한 술어명사 N이 {하} 구성으로 나타날 때와 의미가 동일한가, 즉 'N+시키-' 구성과 'N+하-' 구성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21) Nx-가 Ny-를 [N-하다]

⇒ Nx-가 Ny-를 [N-시키다]

⇒ Ny-가 [N-되다]

(22) a. 그가 두 가닥의 전선을 연결하자 수많은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b. 그가 두 가닥의 전선을 연결시키자 수많은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c. 두 가닥의 전선이 연결되었다.

이 제3유형은 술어명사 자체가 주어와 목적어 논항을 요구하므로 두 개의 논항은 {하} 구성에서도 기본적으로 실현되며 이러한 양상이 {시키} 구성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시키} 구성으로 전환시킬 때에도 새로 논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그대로 {하} 구성의 주어가 {시키} 구성의 주어가 된다. 이 유형에서는, 애초에 두 개의 사건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 구성이나 {시키} 구성이나 그냥 그대로 타동 구성일 뿐이다. 이 유형에서 문 주어는 행위주이며 목적어는 대상이 된다.

일찍이 이러한 {시키} 구성에 대해 최현배(1971)는 {하} 구성의 그릇된 사용이라고 규정하였지만⁶ 이러한 예는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에서 매우 생산적인 현상이 되어 있다. 더구나, 동일한 술어명사에 대해 {하} 구성보다 {시키} 구성이 더 우세하거나, 심지어 {하} 구성은 도태되고 {시키} 구성만이 자연스러운 예들도 상당 수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한·박(2004)에 제시된 {시키} 구성이 우세한 술어명사의 예들이다. 전체 목록은 290여 항목에 이르러 {시키} 구성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여기에 일부만

⁶ 세상에는 흔히 “시키다”를 그릇 쓰는 수가 있나니, 그는 “하다”로 넉넉한 것을 공연히 “시키다”로 하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김 아무가 민중을 선동시켜서 …….

술이란 것은 신경을 자극시킨다.

와 같은 따위이니라. 제움직씨(자동사)의 “하다 따위 움직씨”를 그저 단순한 남움직씨로 쓰는 데에는 조금도 하임의 뜻을 보이는 “시키”가 필요없는 것이어늘, 흔히들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조심없이 “시키”를 붙여 씀은 우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현배 1971: 416-417)

수록하였다.

(23) 가중, 감축, 격리, 결렬, 결부, 결속, 경직, 경화, 고무, 고정, 고조, 관찰, 교란, 교육, 국한, 굴절, 귀속, 규격화, 냉동, 노골화, 노출, 단순화, 단절, 도태, 두절, 둔화, 말소, 매료, 매혹, 몰살, 무력화, 밀착, 반감, 반사, 반전, 변색, 변혁, 변형, 복속, 부각, 분리, 분열, 비하, 비화, 사장, 소외, 수감, 승화, 심화, 약화, 양양, 야기, 약화, 역전, 연결, 연관, 연루, 연장, 와해, 용해, 유예, 유입, 유폐, 융합, 응집, 의식화, 이적, 작동, 적재, 전멸, 전환, 주차, 종식, 중화, 증폭, 진전, 진척, 촉발, 충족, 치환, 탈색, 투과, 파멸, 평준화, 폐차, 표백, 한정, 합리화, 해방, 흑사, 환기, 회석 ...

그리고 일부 슬어명사의 경우, {하} 구성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다. 그런 예들은 다음과 같다.

(24) 감염, 고갈, 고립, 고조, 마비, 오염, 전염, 진척

이들 어휘에 대응하는 {하} 구성의 표제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일부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 사동의 일반적 유형과 ‘N+시키-’ 구성의 비교 분석

3.1 두 가지 사동의 구분

사동(causation)은 언어보편적인 현상으로, 언어에 따라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우언적)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Dixon 2000 등 참조). 사동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어휘·형태적 방식과 같은 소위 ‘짧은 형’들과 형태·통사적(우언적) 방식과 같은 ‘긴 형’ 사이에 의미 차이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Shibatani 1973; Yang 1974 참조).

- (25)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 c. 어머니가 아이를 책을 읽혔다.

말하자면, (25a)와 같이 우언적(periphrastic) 형식으로 사용된 사동은 간접적(indirect)인 의미를 가져서 허용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강제적으로 하게 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 반면, (25b), (25c)로 갈수록 직접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주장과 그러한 차이가 오는 엄밀한 기준이 기존의 설명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의미의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차이의 근거로 제시된 의미적 기준, 직접성(directness) 따위의 정의의 모호함과 그것이 일관된 구조적 차이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다.⁷

Shibatani and Pardeshi(2002)는, 기존의 직접/간접의 의미론적 구분이 많은 반례에 부딪힘에 따라 동반사동구성(sociative causative)을 새로 유형화하여 두 가지 사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직접사동이란 사동사건(causing event)과 피사동사건(caused event) 사이에 시공간적인 중첩이 있고 간접사동은 그러한 중첩이 분명히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사동주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피사동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시공간적인 중첩이 있다면 직접사동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들이 동반사동의 경우들이다. 그들은 동반사동이 간접사동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어떤 언어가 피사동주 명사어에 대해 대체적인 표지를 허용할 때, 대격형이 일반적으로 동반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여격형이나 다른 사격표지는 간접사동을 표시한다. (26)은 동반사동의 하위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다.

- (26) a. Hahaoya-ga kodomo-o asoba-se-te i-ru. (Joint-action)
- b. Hahaoya-ga kodomo-ni osikko-o sa-se-te i-ru. (Assistive)
- c. Hahaoya-ga kodomo-ni hon-o yoma-se-te i-ru. (Supervision)

- (27) a. 어머니가 아이를 놀게 하고 있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오줌을 누게 하고 있다.
- b'. 어머니가 아이를 오줌을 누게 하고 있다.
- c.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고 있다.
- c'. 어머니가 아이를 책을 읽게 하고 있다.

국어에서도 이러한 동반사동에 대한 직관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26b, c)와

⁷ 관련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들이나 김윤신(2001) 참조.

같이 여격 표지가 오는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반면, 대격 표지가 올 때는 시공간적 중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관찰은 ‘사건(event)’ 단위의 구분을 위한 좋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7)에서 이러한 사건의 구분은 시제를 과거로 바꾸면 더욱 명확해진다. ‘-고 있-’은 이 사건이 현재 하나의 장면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기준들의 변별성이 떨어진다.

- (28) a. 어머니가 아이를 놀게 했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오줌을 누게 했다.
- b'. 어머니가 아이를 오줌을 누게 했다.
- c.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했다.
- c'. 어머니가 아이를 책을 읽게 했다.

3.2 어휘적 사동

그러면, 이러한 사동의 구분은 소위 ‘긴 형’과 ‘짧은 형’의 구분과는 상관이 없는가?

- (29)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잠에서 깨게 했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잠에서 깨웠다.
- c. 어머니가 아이를 잠에서 깨게 했다.
- d. 어머니가 아이를 잠에서 깨웠다.

- (30)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침대에 눕게 했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침대에 눕혔다.
- c. 어머니가 아이를 침대에 눕게 했다.
- d. 어머니가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 (31) a.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비를 잡게 했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비를 잡혔다.
- c. ^(?)어머니가 아이를 나비를 잡게 했다.
- d. *어머니가 아이를 나비를 잡혔다.

- (32)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했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 c. 어머니가 아이를 책을 읽게 했다.
- d. 어머니가 아이를 책을 읽혔다.

(29-32)의 의미 차이는 각각 ‘깨다’, ‘눅다’, ‘잡다’, ‘읽다’의 어휘 의미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 예들을 살펴보면, ‘-에게’ 논항은, 그것이 행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의 사동문 이외에는 쓰일 수 없다. (29b)와 (30b)의 ‘깨우다’, ‘눅히다’는 ‘-에게’ 논항을 가질 수 없고 (31b)의 ‘잡히다’는 ‘-에게’ 논항을 가지지만 그 경우 ‘잡다’의 사동사라고 보기에는 의미가 축소된 다른 동사이다. 다른 한편, ‘-를’ 논항이 오는 경우는, 그것이 행위주로 기능할 수 없는 동사에 얼마든지 쓰일 수 있으며 또한 사동사의 ‘긴 형’과 ‘짧은 형’ 구분과 무관하게 사동주의 통제력을 보장해 준다. 결국, ‘긴 형’과 ‘짧은 형’ 사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예는 (31c, d)라고 여겨진다. ‘나비를 잡는 행위’는 어휘 의미 자체가 행위주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31c)의 경우, 그 행위주(‘아이’)가 나비를 잡는 행위 전체를 사동주가 직접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석될 수는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색하고, (31d)는 ‘잡히다’가 어휘적으로 그러한 의미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해석조차도 불가능하다. 즉,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도와 나비를 잡게 만드는 장면을 상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32d)가 가능한 것은 아이는 스스로 씹어서 밥을 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행위주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손가락을 들고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는 직접적 통제의 장면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를’ 논항을 이용한 {게} 구성이 가능한 경우, 그 구성은 {히} 구성으로 어휘화할 가능성이 있고 ‘-를’ 논항의 적용이 어색하면 그 용언의 {히} 구성을 상정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에게’와 ‘-를’의 차이가 사동의 간접성과 직접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됨을 살펴보았다. 즉, ‘-에게’ 논항은 피사동 사건의 행위주를 강하게 요구하며, ‘-를’ 논항은 피사동 사건의 행위주를 넘어 사동주의 통제를 분명히 한다.

3.3 ‘N+시키-’ 구성의 유형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2절에서 살펴본 {시키} 구성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통사적 결합에 의한 사동으로 볼 수 있으며 말뭉치에서 소수의 예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표현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용례일 뿐이다. 어휘적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어서 빈도가 높을 예가 적지만 사실 이러한 구성은 매우 생산적이다.

- (33) a. 두목은 영호에게 금괴를 밀수시켰다.
 b.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모두 복사시켰다.
 c. 선생님은 나에게 이육사의 시를 압송시키셨다.
 d. 아버지는 철수에게 감귤을 재배시켰다.
 e. 그는 나에게 전방을 주시켰다.
 f. 선장은 나에게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

다만, 관련되는 술어명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행위주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어휘적으로 결정되어 있을 뿐이다.

제2유형은 사동주의 통제 대상이 '-를'과 관련됨으로써, 그것이 술어명사의 행위주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사동주의 직접적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술어명사가 행위주를 요구하는 것이어도 되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어도 상관없다. '-를' 논항으로서 술어명사의 대상이나 경험주 논항도 쉽사리 허용된다. 그런데 행위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술어명사 앞에 '-를' 논항이 오는 경우는, 사실상 그 행위주의 자격이 무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 (34) a. 간호사가 할아버지를 병원 근처로 산책시켰다.
 b. 양가는 두 사람을 서둘러 결혼시켰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35) a. CAUSE(x, e[AGENT ...])
 b CAUSE(x, e[¬AGENT ...])

제3유형은 술어명사가 능·피동성의 측면에서 중립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술어명사에 '-되'가 붙어 피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하'의 경우는 중립적인 의미 그대로 서술성만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이다. 어쩌면 '-시키'가 '-하'와 교체 가능하게 쓰이는 것은 '-하'의 중립적인 성격 때문에 피동의 의미를 배제하고 능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술어명사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통사적 사동의 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거짓말시키다', '소개시키다' 등은 이 유형의 특수한 예이다.

- (36) a. 민호는 그 일에 대해 나에게 두 번이나 거짓말시켰다.

b. 선생님은 나에게 영화를 소개시키셨다.

(36a)가 (35a)로 해석된다면 (통사적으로 주절의 여격 논항이 되면서) ‘나에게’는 일어난 사건의 행위주가 되는 반면, (35b)로 해석된다면 일어난 사건에서의 착점(goal) 논항이 될 뿐이다. (36b) 역시 그러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4. 결론

이상으로 볼 때, ‘시키-’의 격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37) a. NP-에게 N(-를)
- b. NP-를 N(-를)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하-’의 다음 격틀 구조와 평행하다.

- (38) a. NP-에게 S-게
- b. NP-를 S-게

‘시키-’는 사건을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일 뿐이다. 다만, 사건 속에 또 다른 행위주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이 사실이 주절의 ‘-에게’ 논항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소위 ‘간접 사동’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는 사건 속 행위주의 자발적 행동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시키-’의 대상(theme)은 사건 자체이지 그 사건의 행위주가 아니다. 반면, 사건 속의 한 논항이 ‘시키-’의 ‘-를’ 논항이자 대상이 되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직접 사동’ 현상이라 하며 동반 사동 등 다양한 경우를 벌여 그것이 ‘시키-’의 대상이 됨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NP가 사건 속에서 행위주로 기능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그냥 묻히게 된다. 따라서 행위주의 자발성에 대한 가능성을 부각시켜 해석하려 하면 ‘직접 사동’의 의미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의 여지는 언어 표현과 무관한 것이 된다.

술어명사의 성격이 행위주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데 그런 술어명사가 관련된 사건을 영등한 존재에게 (‘-에게’ 논항으로) 시킨다면 어색한 문장이 발생할 것이며((39a)) 술어명사가 반드시 행위주를 요구하는데 그 행위

주를 시키의 직접 대상으로 삼으면 역시 다소 어색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
김의 주체가 매우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보여줄 것이다.

(39) a. *형이 나에게 감동시켰다.

b. ?(*)그 선생님이 나를 위대한 언어학적 사실을 발견시켰다.

(39b)는 ‘그 선생님’이 초월적 존재이셔서 내가 위대한 언어학적 사실을 발
견하는 과정을 즉 인도해 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위대한 언어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데 주된 원인이 되셨다는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의
의미 해석은 일반적인 의미 선택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며 후자의 경우 역
시, 국어에서는 흔하지 않은 어색한 표현 방식이 된다.

제3유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립적인 술어명사의 경우, 마치
중립 동사에 타동적 행위주 논항이 하나 더 부가되어 타동사가 되는 과정
과 사동의 과정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40) a. 민호가 교육되었다.

b. 선생님께서 민호를 교육하셨다.

c. 선생님께서 민호를 교육시켰다.

d. 선생님께서 나에게 민호를 교육시켰다.

(41) a. 부대가 이동-되었다(/-하였다).

b. 지휘관이 부대를 이동하였다.

c. 지휘관이 부대를 이동시켰다.

d. 지휘관이 부지휘관에게 부대를 이동시켰다.

‘하-’는 중립적인 서술성을 부여하는 기능동사(경동사)라면 ‘되-’는 피동적
서술성을, ‘시키-’는 타동적 서술성을 부여하는 기능동사라 할 수 있고, 결
국 사동 현상은 이 과정에서 ‘시키-’ 사건 속 행위주의 역할을 중간 단계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른 부차적 현상일 따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첨언하자면, {히} 구성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이나, {히} 구성은 어휘화된 것이므로 논항의 제한이 확고해진 것
이다. (30b)가 좋지 않지만 이러한 구성도 예전에는 가능한 구성이었을 것
이고 {히} 구성이 간접 사동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42)는 박정운(1995)에
서 재인용)

(30b)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침대에 눕혔다.

b. ^{?(*)}어머니가 아이로 침대에 눕혀었다.

- (42) a. 성 밖에 일곱 절 일어 중 살리시고 (월인석보 2:77)
(성 밖에 일곱 절을 지어 중을 살게 하시고)
b. 아이로 흰히 등을 굽히고 (두시언해 15:4)
(아이에게 시원하게 등을 굽게 하고)

참고문헌

- 김성주. 2002. '-시키-' 동사의 유형과 국어의 사동문. 국어국문학 132호. 국어국문학회. Pp. 5-28.
- 김윤신. 2001.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배. 1995. '-시키다'에 의한 합성적 사동법 연구. 한말연구 제1집. 한말연구모임. Pp. 53-79.
- 박양규. 1978. 사동과 피동. 국어학 7.
- 박정운. 1995. 구문의 재분석과 역형성: 사동사의 논항문제. 담화와 인지 제 1권. Pp 215-229.
- 박철우. 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 제34호. Pp. 75-111.
- 서원임. 1974. 사동법 기술 시안. 문법연구 제1집. 문법연구회. Pp. 187-207.
- 양인석. 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어학연구 10-1.
- 이정민. 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an Korea Book Corporation.
- 정성여. 2002. 意味を基盤とした韓日使動構文の分析 -非規範的使動構文を手がかりとして-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한선혜·박철우. 2004. '명사-시키다' 구성과 사전에서의 처리. 한국사전학회 봄 학술대회.
- Carlson, Greg. 1998. Thematic Roles and the Individuation of Events. In S. Rothstein (ed.), *Events and Grammar*, Pp. 35-51.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 Syntax and Morph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Dixon, R. M. W. 2000. A Typology of Causatives - Form, syntax and meaning. In R. M. W. Dixon and A. Y. Aikhenvald (eds), *Changing Valen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p.

30-83.

- Shibatani, M. 1973.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Pp. 281-298.
- Shibatani, M. and S. Y. Chung. 2002. Japanese and Korean Causatives Revisit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10. Pp. 32-49.
- Shibatani, M. and P. Pardeshi. 2002. The Causative Continuum. In Shibatani, M. (ed.) *The Grammar of Causation and Interpersonal manipulation*. John Benjamins. Pp. 136-177.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한샘. 2003. 한국현대소설의 어휘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2002.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 한국어세계
화재단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 보급 관리 센터.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